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12월 07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 추가설치 필요 주장

구 본 승 의원
(무소속/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구본승 의원은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번동 일대에 3개의 꿈동이 예비학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꿈동이 예비학교는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아동들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여 초등학교 입학 후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되어 현재 송천동, 삼각산동, 수유1동, 수유2동 주민센터 및 인수동에 위치



▲ 구본승 의원.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구본승 의원은 동별 다문화가정 현황 자료를 보면, 다문화 가정 수가 많은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쪽에 꿈동이 예비학교 미설치,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번1,2,3동에 꿈동이 예비학교 미설치 되었다는 자료를 첨부했다.

이에 구 의원은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처럼 13개동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 내년에는 강북구 전역에서 균형감 있게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삼양동, 미아동에 1개소, 송중동에 1개소, 번1,2,3동에 1개소 등 총 3개소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je1718@naver.com〉

서울포스트 4면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 추가설치 해야



구본승 의원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된 지난 1일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본승 의원이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번동 일대에 3개의

꿈동이 예비학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구본승 구의원은 꿈동이 예비학교는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아동들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여 초등학교 입학 후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설치되어 현재 송천동, 삼각산동, 수유1동, 수유2동주민센터 및 인수동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준비된 동별 다문화가정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구 의원은 꿈동이 예비학교처럼 13개동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 내년에는 강북구 전역에서 균형감있게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삼양동, 미아동에 1개소 송중동에 1개소 번1,2,3동에 1개소, 총 3개소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 추가 설치해야”

구본승 의원은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된 지난 1일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번동 일대에 3개의 꿈동이 예비학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구본승 의원은 꿈동이 예비학교는 다문화



가정의 취학 전 아동들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여 초등학교 입학 후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설치되어 현재 송천동, 삼각산동, 수유1동, 수유2동주민센터 및 인수동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준비된 각동별 다문화가정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구 의원은 “꿈동이 예비학교처럼 13개동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 내년에는 강북구 전역에서 균형감있게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삼양동, 미아동에 1개소 송중동에 1개소 번동, 1,2,3동에 1개소, 총 3개소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